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라따뚜이와 친구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5년 04월 07일(화요일) / 장 소 : 도서관 스터디룸							
참석자 명단	학번	2015	이름	고00	학번	2015	이름	백00
	학번	2015	이름	김00	학번	2015	이름	김00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p> <p>오늘은 책을 읽기 전에 동서양에 대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이미지나 편견 등을 지닌 채 토론 해 보았습니다. 주제는 마지막 8주째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의 생각을 비교하기 위해 같은 주제로 토론과 토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토의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불리 내지 않기 위해 마지막에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동양은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을 비롯해 한국과 관계가 깊은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서양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근본 바탕이 되어 유럽 전체에 영향을 준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p> <p>통합 논제 : 신화를 역사로 취급해도 되는가?</p> <p>찬성 : 백00 & 김00</p> <p>신화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설화이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거쳐 전해져 오기 때문에 속에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문화나 풍습이 녹아있어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실제 역사 연구에서도 세계 곳곳에 물적 증거들이 남아있기에 설화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가 있었기에 글이 없었던 시절 고대인들은 서로를 도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화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으므로 역사가 될 자격은 충분합니다.</p> <p>반대 : 김00 & 고00</p> <p>신화가 역사의 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인류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이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들에는 필수적으로 증거가 뒤따라옵니다. 그러나 신화는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추측뿐인 물적 증거로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세대가 지나면서 덧붙여지거나 빠진 내용으로 처음과는 다른 변질된 이야기가 많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화를 역사로 취급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을 기록한 역사가 아닌 단순히</p>							

허구성만 가득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외의 동물이 사람이 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될 수 없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꿈같은 이야기는 그저 꿈으로서 남겨둬야 합니다.

(부제) 신화 유적지에 가야만 역사를 배울 수 있는가?

백00

사진이나 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통해 보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는 것이 신화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와는 다른 모습을 직접 보기 때문에 자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0번 듣는 것보다 1번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김00

유적지는 그 나라나 지역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 지역,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녹아있으며, 그들의 생활상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상과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본받을 점도 얻을 것이고, 지금 사용하는 것들의 생성 배경이나 시초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적지는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00

‘신화 유적지에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아니다’라고 답하겠습니다. 유적지에는 확실히 그 당시의 생활터전이나 과거 선조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신화는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단순히 유적지에 가보는 것으로 알아내겠다고요? 수천 년간 만들어져 완성되어 온 신화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때 당시 쓰인 책을 읽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상상력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이야기인 신화, 그것을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고00

유적지에는 그 나라의 고유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기후나 지형에 영향을 받아 그 나라사람들의 특징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져 나타나 있는 것이 유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사람들의 뿌리를 알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조상이 어떻게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공부함으로써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적지에 가는 이유는 그 당시의 그 사람과 소통을 하고 배경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 04월 07일

참가자대표 : 김00 (서명)